

研究論文

20세기 초 러시아 극동에서의 황화론*
- 조선인 이주와 정착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 -

권희영**

I. 머리말	V. 맺음말
II.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황인종’의 노령이주	<참고문헌>
III. 운테르베르게르 총독과 극동경영	<국문요약>
IV. 메르쿠로프와 황화론	

I. 머리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기 전까지 극동에서 러시아는 명백히 覇者처럼 보였다. 러시아는 아무르주와 연해주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만주지방에도 동청철도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동방정책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까지 포함하여 만주에서 그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륙진출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인구가 희박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새로이 획득한 식민지인 연해주, 아무르 지방의 지배를 공고히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극동지방은 다루기 힘든 식민지였다. 극소수의 토착민이 거주하던 이 지방을 성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그리고 인구압으로 팽창하는 중국에 대하여 러시아의 지배력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확고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군

*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년도 단독과제로 수행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사 전공(kwonhyg@hanmail.net).

사력이 강화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란 동시에 군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 러시아 극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이 지방은 무엇보다 교통이 불편하였고, 인구가 희박하였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개발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를 개설하였지만 러일전쟁까지도 전 구간의 개통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러시아로서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 극동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청과 조선의 인구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과 조선에서는 많은 인구들이 생존에 필요한 일거리 확보 혹은 토지 경작을 위하여 기꺼이 고국을 떠나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이민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개발을 한편에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극동식민지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러시아의 견지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시에 신속하게 군대를 증파시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또한 러시아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세기 초 러시아가 극동을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 일하고 있던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에 대해 “黃禍”라는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황화의 담론은 특히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에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담론은 사실상 러시아만의 것의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유럽 및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유포된 담론이기도 하였다. 1) 그러한 점에서 황화의 담론은 러일전쟁 직후에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일회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볼셰비키의 지배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담론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같은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조선인 유이

1) Poulet, R., “Le peril jaune,” *La Revue des ressources*, le lundi 7 novembre 2005, www.larevuedesressources.org 참조

민과 황화의 문제를 연계시켜 논의한 글은 희소하다.³⁾ 본고는 이같이 러시아에 나타난 황화의 담론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러시아에서 황화의 담론이 특히 강하게 비등하였던 러일전쟁 이후, 운테르베르케르 총독과 곤다티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의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운테르베르케르, 그라베 그리고 메르쿠로프는 모두 러시아 극동의 엘리트로서 황화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극동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식민경제와 안보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의 극동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국인과 조선인 중 어느 쪽을 보다 큰 위협 요인으로 보는가에 따라 러시아의 이민정책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러시아 극동에서의 이민정책은 운테르베르케르 총독 시기에는 조선인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정책이 실시되지만, 곤다티 총독 시기부터는 비교적 호의적인 정책이 실시되는 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각 총독이 가진 황화에 대한 평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황화론을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초 러시아 극동에서의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I.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황인종'의 노령이주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에 의하여 1858년과 1860년에 각각 러시아령이 된 아무

-
- 2) 황화의 위기의식이 소련의 해체 이후 민족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음은 러시아에서 *Zheltaia Opasnost'*. Vladivostok: Izd. "Voron," 1996가 출간된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서양의 황화 담론이 주로 중국인과 일본인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담론임에 비하여 러시아에서의 담론은 초점이 보다 조선인(한인)에 맞추어져 있음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3)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黃禍論)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4권 1호(2000)가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19~20세기 전반을 다루었다. Pak, B. D., *Koreitsy v Rossiiskoi Imperii* (Moskva: 1993)은 황화론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운테르베르케르의 반조선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pp. 106~112). 황화를 1937년의 강제이주와 관계하여 언급한 것으로는 Kuzin, Anatolii, *Dal'nevostochnye Koeitsy: Zhizn' i Tragedia Sud'by*(Iuzhnosakhalinsk: LIK, 1993), p. 32;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통일원, 1996), 77~78쪽이 있다. 그러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르주와 연해주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소수의 만주인(중국인)과 시베리아의 토착민들만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이 무렵 아무르주에는 약 1만 5백명의 중국농민이 44개의 촌락에 제야(Zeia)강에서 호르몰진(Khormoldzin)마을까지의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연해주에는 약 900명의 토착민이 우수리강의 지류에 흩어져 살았고 그리고 수렵인, 어부, 삼과 금 채집자로서의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합해도 2~3천명이 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야강의 만주인(중국인)들은 1900년에 의화단의 난에 가담하였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강 좌안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살던 마을은 아무르 카자크가 접수하여 니콜라예프스크로 개칭되었다.⁴⁾

이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극동의 지배를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삼게 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러시아인의 이주는 극히 부진하였다. 1869년에 자바이칼주에서 남녀 18,500명의 카자크인 그리고 1875년까지 러시아에서 3,500명 미만의 농민들이 이주하였을 뿐이다.⁵⁾ 지역 개발에는 도로개설, 병영이나 관청 등의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확보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하여 중국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황인종’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라베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1870년대 중반부터 直隸省과 山東省에서 150명의 노동자가 초치되었고 이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요새와 항만 건설, 우수리 철도 건설, 동청철도 건설, 여순항 대련항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수의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1880년대 후반부터는 사금장에 중국 노동자들이 초치되어 환영을 받았다.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⁶⁾ 이리하여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워도 1906~1910년까지 5년 동안에만 약 55만 즉, 매년 11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프리아무르 지방에 유입되었다고 간주된다.⁷⁾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봄 2~4월에 입국하여 돈을 모아

4) Grave, V. V., *Kitaisy, Koreitsy i Iapontsy v Priamure* (S. Peterburg, 1912), pp. 5-6. 황화론에 대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 중의 하나인 그라베 저서의 일본어 번역본으로 在外朝鮮人情研究會, 『北滿及露領朝鮮人情』(大正 11)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어본은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것은 러시아어 원본이다.

5) *Ibid.*, p. 6.

6) *Ibid.*, pp. 6-7.

7) *Ibid.*, p. 16.

서는 가을 11~12월 경 돌아간다. 상기 5년간 약 40만 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국하며 결국 약 15만 정도의 중국인들은 하인, 상인, 불법노동자로서 항시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⁸⁾ 이밖에도 중국인의 경우에는 상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인들보다도 아주 낮은 경비로 상점을 유지하며 러시아의 경우는 대개 운전자본의 1.5할~2할, 중국인은 약 0.5할~0.8할, 밀수를 행하고,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⁹⁾

황인종의 문제는 그러므로 중국인의 경우에는 주로 노동자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인들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보이의 경우는 “더 말할 수 없이 아주 좋다. 정확하고,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명령을 잘 기억하고, 비교적 정직하며 빨리 러시아어를 말하는 것을 배운다.”¹⁰⁾ 그리고 중국인 일반 노동자들은 유순하고 낮은 임금에도 일을 잘 해서 러시아 기업가들이 이들에 집착하게 된다. 반면에 극동노령의 러시아 노동자들은 평판이 나빴다. “이들은 죄수, 유형자, 금을 채취하려고 온 이민자들에서 탈락한 사금채취실패자, 즉, 시베리아에서는 ‘슈파닉’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요구하는 것은 많고, 파업을 쉽게 하려고 하며, 항상 게을러서 축일에는 일하지 않으며, 제 맡은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완수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은 중국인 이상이었다. ‘어떤 청부업자도 러시아 노동자에 일을 시킬 때 무사완성 즉 빨리 그리고 만족스럽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1910년 9월 20일 아무르탐험대의 블라고베센스크 비르즈 위원회 책임자 명의 보고서 351호에서 말했다.”¹¹⁾

그라베의 이와 같은 보고는 러시아 극동에서 러시아 정부가 많은 러시아 노동자의 고용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선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오지중의 오지인 극동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극히 부족하기에 죄수 등 강제이민을 통하여 이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였고 그것이 러시아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따라서 이들이 중국인 노동자들과는 경쟁상대가 되지

8) *Ibid.*, p. 21.

9) *Ibid.*, pp. 30-31.

10) *Ibid.*, p. 51.

11) *Ibid.*, p. 53.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노동자로 입국하여 노동하고 체류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경우는 농민들이 유민의 주류를 형성하였다.¹²⁾ 조선인들이 노령으로 이주하는 것은 1863년부터의 일이었다. 그전에 계절적으로 왕래하는 자는 있었으나 가족단위로 이주가 시작되는 것은 이때부터의 일이었다. 최초의 이주자들은 13 호로 이들은 노브고로드만 연안의 포시에트 구역의 관유지를 임의로 점유하여 농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까지 1,164 호 5,447 인이 이주하여 포시에트 남방에 10개의 촌락을 이루었다.¹³⁾ 1867~69년에는 수이푼강(수분하) 연안에 680호 3,321 인이 4개의 촌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871 이후 조선인부락은 베르호네-우스스 크촌, 1872년에는 수찬스크(소성), 라즈돌린스크촌에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 103 호 431 인의 조선인이 아무르주의 사마르카강과 흑룡강 합류지점 블라고베센스크 아래로 547 베르스타에 있는 블라고슬로벤노예촌을 구성하였다.¹⁴⁾ 조선인들은 농업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비교적 빨리 노령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관헌이 비교적 호의적으로 이들을 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그라베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우리의 황무지에 인구가 정착함으로써 그 효용은 신속히 나타났다. 밀 경작이 발달하여 이 지방에 곡물의 잉여를 가져오고 따라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동시에 그 주민들은 지방관헌의 명에 의하여 화물도로의 개설 혹은 관용화물의 수송 등에 종사했다. 조선인들은 그들의 자산으로 국고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노보키에프스크 경계에서 라즈돌노에 촌까지, 또 포드고로드노 이 역에서 수찬 경유 올라 까지 800 베르스타의 화물도로를 열었다.”¹⁵⁾

12) 조선인의 노령 이주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을 소개한다. 이동언, 「노령지역 초기한인사회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현규환, 『韓國流移民史(상)』(어문각, 1967); 고승제, 『韓國流移民史研究』(장문각, 1973); 고승제,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 分析」, 『白山學報』, 제1집(1971); 김준엽 김창순, 『韓國共產主義運動史(1)』(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윤병석,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과 신한촌」, 『한국민족운동사연구(3)』(1989);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김승화, 정태수(역), 『소련한족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연구』(탐구당, 1996);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국학자료원, 2001); Petrov, A. I.,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Vladivostok: DVO RAN, 2000).

13) Grave, V. V. *op. cit.*, p. 128.

14) *Ibid.*, p. 129.

조선인들이 계속하여 이민을 하게 되면서 조선정부와 러시아 사이에는 조선인 이민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그 기준 시점은 1884년의 한러조약이 되었다.¹⁶⁾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① 1884년에 이주한 조선인은 정주허가를 내주고 러시아 국적에 편입하게 하고, ② 1884년 이후 거주한 조선인은 사업폐쇄를 위하여 일정기간 체류하고 이후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③ 제3그룹은 일시적 방문자로 분류되었다. 당시 제1그룹의 조선인은 1,845호 9천 정도였다. 이들은 제1그룹 조선인은 러시아 국적에 편입되고 호당 15 데샤치나의 토지를 새로이 이주하는 조선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여받게 하였다. 제2그룹의 조선인에게는 2개년의 시한이 주어졌다. 그렇지만 동시베리아의 총독이었던 코르프 남작이 미온적이어서 조선인들의 러시아 입적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실제로 입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1893년에 가서 두호프스키 총독 때의 일이었다.¹⁷⁾

두호프스키가 총독이 되면서 정책이 변경되었다. 그는 어떤 인종으로라도 극동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을 받아들여 이들을 러시아화 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두호프스키는 바로 제1그룹의 조선인에게 선서를 명하였고, 제2그룹의 조선인은 출국연기를 허가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제1그룹의 조선인으로 편입하였다. 그 이후 조선인의 인구가 한층 더 늘어나게 되었다.¹⁸⁾

그로테코프 장군도 총독이 되면서 조선인에 호의를 베풀고,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동정을 가지도록 하며 극동의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그로테코프 장군은 1898년 4월 11일자 명령 2199호로 5년 이상 극동에 체류한 제2그룹 조선인을 러시아 국적에 편입시켰다. 이에 기초하여 1898~99년 제2그룹 조선인이 북방에 이주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하바로프스크 부근 키이천(川) 천안에 루키아노프

15) *Ibid.*, p. 130.

16) A. I. Petrov는 러시아 극동에 이주한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1884년 이전에 조선인은“사실상” 러시아 신민의 지위를 가졌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1861년 4월 27일의 프리아무르 지방에 대한 이민허용이라고 간주하였다(Petrov, A. I., *op. cit.*, p. 100) 그러나 토지분여가 1871년에 블라고슬로벤노예촌 건설시에만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의미라기 보다는 소속감의 차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Anosov, S. D., *Koreitsy v Ussuriiskom Krae*(Khavarovsk-Vladivostok: Knizhnoe delo, 1928), p. 10.

18) *Koreitsy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Vtoraia Polovina XIX-NachaloXX vv.: Dokumenty i Materialy* (Vladivostok: Izd. DU, 2004), p. 153.

카, 오시포프카, 알렉산드로프카 등 조선인촌이 생겨나서 5년을 경유하여 이들은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¹⁹⁾

위에서 극동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노령이주와 이들 이주민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황색인들의 이주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 부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황색인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강력한 황화론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살필 것이다. 그렇지만 체계적인 황화론이 아직 강력하게 대두되기 이전에서도 이미 러시아인들의 태도에 그 싹은 자라나고 있었다. 말하자면 황화의 담론은 그 출발에서는 서양인의 극동 황인종에 대한 우월위식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인들의 이미지에서 황색인들은 하층민이며 더럽고, 그들과 같은 문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층민의 삶은 평화로운 문명의 삶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적극적인 황색인 배척에는 반대하는 그라베조차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라베의 경우에도 중국인들을 비롯한 황색인들이 위생 상의 이유 등 유럽인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획을 지어서 그들끼리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극동 노령에는 아시아인들의 집단거주구역에 대한 러시아 법률이 1902년 9월 29일부터 발포되었다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하바로프스크, 블라고베시첸스크, 니콜라예프스크, 니콜스크, 우수리스크에 중국인 구역, 조선인 구역이 설정되었다. 블라디보스톡의 경우는 중국인들을 특별구역으로 몰아내는 것에 대하여 1900년 블라디보스톡 시청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요새사령부, 군무지사, 시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⁰⁾ 그라베의 견해로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중국인들이 시의 중심, 공설시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들은 독특한 불결을 발휘하여 시의 거리를 더럽히는 것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매년 티푸스, 콜레라가 발생한다고 하며 어떤 이는 중국인 구역의 건설에 반대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러시아인이 황색인종과 인접하는 불쾌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극동노령에 있어서 중국인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가능하게

19) Grave, V. V., *op. cit.*, p. 132.

20) *Ibid.*, p. 125.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라베는 주장하였던 것이다²¹⁾

III. 운테르베르게르 총독과 극동경영

1890년대에 러시아 극동지방에 조선인의 이민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취한 것은 한편으로는 만주와 한반도에 까지 세력을 팽창한 러시아의 자심감이 밑에 깔려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러시아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에서도 그 세력이 크게 위축당하게 되자 러시아 극동식민지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 한층 고조되었다.

더구나 황화론자였던 운테르베르게르가 총독이 되면서 조선인 정책은 다시 적대적이 되었다. 그는 1906년 초에 극동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남우수리를 시찰하였다. 거기에 조선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엄청난 위협”으로 판단하였다.²²⁾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동화되지 않으며 조선인들의 충성심을 믿을 수 없기에 유사시 일본이나 중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첩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³⁾

운테르베르게르는 특별히 조선인의 존재가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와 같은 판단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그는 1907년 9월 29일 연해주군무지사에게 보낸 비밀명령에서 조선인 문제에 대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선인들이 극동에 정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우리의 변경지역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조치란 조선인들로부터 여권세를 징수 강화하고 조선인의 이민을 막는 것이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현재 극동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소간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된 특수한 여권

21) *Ibid.*, pp. 125~127.

22) *Ibid.*, p. 154.

23) *Ibid.*, p. 154.

규정이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항의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²⁴⁾ 이 회의는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년 10월 18일 개최되었으며,²⁵⁾ 여기에서는 연해주에 조선인 중 러시아 여권을 가진 자는 50분의 1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여권 규정 위반으로 입은 국고손실이 연해주에서만 16만 루블 이상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그는 새로운 조선인 이민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조선인 이민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장려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민을 가능케 하는 러시아 국적인 조선인들에 대하여서도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²⁶⁾ 전문을 내무장관에게 전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서 그는 조선인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그는 제1그룹 조선인의 권리 심사를 행하고, 어장에 조선인 노동자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러시아 국적 조선인에게 관유지 임대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학교, 거류민회, 연안무역 등에 관해서는 중국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종종 여러 면에서 압박을 하였다. 운테르베르게르가 조선인을 황화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의견을 1910년 10월 18일 그라베 자신에게 언급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황화는 강하게 프리아무르 지방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의 구별 없이 모든 황색인종과 싸우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곧바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들을 추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은[조선인들-필자] 중국인같이 집을 떠나 노동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개는 전답을 개간하고 가옥을 지어서 토착 영주를 바라므로 조선인 노동자의 사용금지 후에도 의연히 잔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독이 조선인에 대하여 엄격하고 중국인에 대하여 관대한 이유이다. 조선인은 러시아인이 도저히 개간할 수 없는 돌밭을 잘 개간한다. 그러나 돌밭에 이어 계속하여 좋은 토지

24) *Koreitsy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Vtoraia Polovina XIX-NachaloXX vv.:Dokumenty i Materialy*, pp. 144~145.

25) *Ibid.*, p. 143.

26) *Ibid.*, pp. 145~146.

에 침략을 행하고 친족들을 초청하여 그곳에 새로운 조선인 부락을 만드는 까닭에 그들에게 러시아인이 개간할 수 없는 토지를 분여해주고자 하는 러시아 이민국의 안은 국익에 합하지 않는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10년이 되지 않아 러시아인은 그들에 의하여 몰려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조선인의 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선인이든지 누구든지 일찍 극동노령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선대 총독의 의견에는 반대이다. 조선인이 있는 개간지가 좋은가, 조선인이 없는 미간지가 좋은가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오로지 후자를 택할 것이다. 가령 지금은 황무지일지라도 시기가 도래하면 러시아인이 오게 되면 개간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컨대 황인종에게 러시아의 토지를 개방하는 것은 단연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²⁷⁾

1910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면서 러시아의 극동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 한층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극동에서의 안보문제, 특히 일본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러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황색인종문제조사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중국인과 조선인의 특별여권수수료규정을 입안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러시아는 극동지방의 식민 및 국방강화를 위하여 좀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목적으로 아무르답사대(*Amurskaia Ekspeditsia*)가 조직되었다.²⁸⁾ 그 답사대의 책임자로 그라베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조사 후 오히려 극단적인 조선인 배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라베를 위시한 아무르지방답사대의 의견은 운테르베르게르와 달랐다. 그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그 경화된 태도를 완화시키려고 하였고 그것을 그라베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아무르답사대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일단 운테르베르게르 총독에 의하여

27) Grave, V. V., *op. cit.*, pp. 136~137.

28) *Ibid.*, p. 3. 원정대의 여행은 극동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원정 지역은 아무르주의 금광지(중국노동자), 니콜라예프스크 지역(일본인 어업), 블라고베센스크에서 포시에트 그리고 라즈돌노에서 조선국경까지(조선인 농민) 이르렀다. 또한 만주이민을 고찰하기 위하여 북경 길림, 치치하얼, 블라고베센스크, 송가리, 하르빈, 홀란헤, 훈춘, 아르군까지의 지역을 조사한 것이다(pp. 3~4).

경화된 정부의 태도를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하여 그 결과 1910년 가을 극동노령조선인대책은 점차 완화되었다. 그리하여 제야, 세렘진 양 하안의 금광, 블라고베센스코예촌, 니콜라예프스크 및 포시에트구 부근의 촌락답사에서 받았던 인상을 근거로 극동노령에 있어서 조선인의 폐해를 부정하는 저자의 사명은 크게 가벼워진 감이 있다.²⁹⁾

이상의 언급에서 살펴볼 수 있듯, 그라베는 극단적인 조선인 추방정책을 반대하며 오히려 조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그것은 현지의 여론을 충실히 관찰하며 수집한 것 때문이었다. 이제 그가 수집하였던 현지 러시아인들의 여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 언급하였듯 대개의 조선인들이 사금장의 노동자 혹은 농민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금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보여주고 있던 태도들이다. 조선인들이 사금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1891년의 베르흐네-아무르스코이 회사의 사금장에서부터라고 한다. 1891~92년에 아무르주의 조선인은 470명, 1892~93년의 경우는 1,050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6년에는 6,300명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수나 비슷한 수치였다고 한다.³⁰⁾ 이렇게 되자 조선인 노동자들이 러시아인 노동자의 이익을 손상한다고 하여 관헌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황색인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02년에는 황색인 노동자의 비율을 정하여 러시아인 50%, 조선인 25%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황색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운테르베르게르가 총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사용하여 황색인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2,600명 이내의 조선인만을 고용 허가해 주었고 1908년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라고 금광업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총독은 아무르주지사에게 사금장의 조선인을 전부 추방하라고까지 훈령을 발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에 아무르주에서 2천명 연해주 우즈스키구에서 1,500명의 조선인이 추방되었는데 이들은 사금장에서 추방된 후에도

29) *Ibid.*, pp. 137~138.

30) *Ibid.*, p. 145.

도시나 촌락에 잔류하였고, 그 자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였다. 오직 조선인을 사용하던 봄 및 우니河의 금광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를 금지시킨 결과는 노동자를 중국인에 독점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³¹⁾

그라베는 다음의 관점에서 총독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은 중국인에 비하여 훨씬 더 다량의 물자를 소비함으로써 극동노령에서 그가 번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만약 중국인이 매월 8루블을 소비하고 러시아인이 23루블을 소비한다면 조선인은 18루블을 소비한다.”³²⁾ 이와 같은 조선인의 소비양태는 금광업자에게 도움이 된다. 금광업자의 주수입원의 하나는 창고경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선인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인의 2배는 된다. 그뿐 아니라 “성질이 정직, 온순하고, 모든 면에서 청결”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총독에게 지문해주는 광구경찰서장들은 모두 조선인 노동자의 존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라베는 조선인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레이구 경찰서장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조선인의 일년 수입은 300~500루블이다. 조합장의 수입은 경우에 따라 수천루블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사금장에서 조선인은 대개 품행이 바르고 성질이 온량하며 러시아인과의 잘 화합한다. 러시아인과 조선인이 합동하여 조합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조선인 사이에는 구제기관이 있다. 조선인의 노동자로서의 능력은 러시아인에 비하여 25~30% 낮지만 노력, 의지, 범장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인에 비해서는 25~30% 능력이 높다.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난폭하지는 않다. 동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중국인에 비하여 거의 없다. 조선인의 나병률은 러시아인에 비하여 적다. 이것은 조선인이 러시아인보다도 청결한 것이 원인이다. 이들은 신속히 러시아인에 습관화되어 러시아의 풍습에 변화하며 기꺼이 희랍교에 개종하여 러시아 국적으로 이동한다. 이점은 중국인과는 반대이다. 황색인종 중에 조선인이 제일 좋다. 조선인에게는 사금장의 취업을 허용하고 싶은 것이다.³³⁾

31) *Ibid.*, p. 146.

32) *Ibid.*, p. 147.

33) *Ibid.*, pp. 150~152.

제야지방의 러시아 노동자들도 이를 인정하여 아무르답사대편에 108명의 서명이 있는 건백서를 제출하여 중국인 노동자들이 극동노령에 들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하등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다.³⁴⁾ 단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아도 “조선인의 유일한 부정적 방면은 그들은 토착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 특징은 최고관청이 그들에 대하여 태도를 냉담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라베는 이것도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사금장은 밀림 중에 있고 주위가 모두 소택지라서 러시아인들이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조선인들은 이와 같은 지역의 경작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종래에는 먼 지역에서 운송하던 생산물이 조선인 때문에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을 동반한 조선인 노동자는 아주 소수라서(1907년 부레야광구의 사금장에 2,265인의 조선인 중 35명) 그 정착의 가능성도 약하다는 것이다.³⁵⁾

그라베는 농업에 종사하는 조선인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그의 조선인의 농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조선인의 대다수는 농업을 경영한다. 그들은 천성의 농민이라서 일견 농작 불가능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채원을 일으키고 연맥 및 고맥을 재배한다. 사력토산의 급사면, 소택과 같은 것도 일단 조선인의 손에 들어가면 바로 농경지로 된다. 밀림은 벌채되고, 돌은 뽑혀지고, 소택은 물길을 내어서 건조시킨다. 흑룡강 하류의 험준한 하안, 니콜라예프스크 부근의 산, 아무르주 북부의 알단河 및 팀프톤河의 사금장부근에는 지금까지는 그곳에 조선인의 채원이 있는데 이전에는 비쌌던 것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³⁶⁾

그는 조선인의 농업이 러시아에 대하여 가진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황색인 노동의 농업적용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아 긍정적 방면과 부정적 방면을 가진다. 하등 농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지방의 주민에 곡물야채를 제공하는 것 및 지방에 적합한 경작재배 방법을 러시아인이 배우게 하는 것은

34) *Ibid.*, p. 152.

35) *Ibid.*, pp. 152~153.

36) *Ibid.*, p. 153.

긍정적 방면이다...(부정적 방면은) 조선인의 토지임차 및 농경은 이민으로써 극동노령에 온 러시아 농민에게 경쟁원을 만들고, 이어서 러시아인의 극동식민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해하다. 또 조선인은 토지를 확대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마지막으로 러시아인 지주는 경작을 싼 값에 황색인 노동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이익을 얻음으로써 자연히 타락하여가고 있으며 술을 마지고 방탕에 몸을 맡기어 무너지고 부하계는 되지만 몸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³⁷⁾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선불리 조선인들을 추방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일면 황색인 노동자의 극동노령이 가져오는 종종 이익을 잃게 하는 동시에 타면으로는 이제까지 그들의 힘에 의하여 경영하여 왔던 러시아인 농민을 난경에 빠지게 하고 수입의 격감 혹은 파산을 유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같은 토지에서 러시아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³⁸⁾ 또한 조선인은 러시아인이 경작하지 못하는 척박한 토지도 경작하여 이익을 올리므로 이같은 토지를 조선인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여하튼 조선인이 산림 벌채, 목근 제거, 돌 제거, 수류지 건조 등으로 힘들게 토지를 개간하면 러시아 이민은 그 개간지에 토착하여 첫해에는 조선인의 작은 가옥을 사고 다음해에는 1년의 수확으로 러시아식의 가옥을 건축하는 것이 니콜라예프스크 부근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인의 토지개척능력을 이용하여 미간지를 개척하려는 시도도 일시 이민국에 의하여 입안된 적도 있으나 이 계획은 지방관청에 의하여 거부되었던 적도 있었다.³⁹⁾

여하튼 연해주 니콜라예프스크구의 이민국장인 블라쉴브는 ① 이민국획정지에 조선인이 무단히 점거하는 경우 토지를 취하는 것은 이민이 도래하는 시기까지 연장하고 언제라도 되거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② 조선인이 개간한 토지에 재배하는 곡물 야채 건물 설비를 무상으로 탈취하는 부도덕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으로서 이민국의 중개를 통하여 조선인의 재산을 구입할 것, 그리고 그 자금은 이민국이 저리 융통할 것, ③ 되거한 조선인은 다시 더 먼 곳에 보내고

37) *Ibid.*, pp. 166~167.

38) *Ibid.*, pp. 167~168.

39) *Ibid.*, p. 170.

이주 후 3~5년 후에는 언제라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새로운 땅을 선정할 것과 같은 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라베는 이같은 생각이 좋은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다.⁴⁰⁾ 이같이 조선인을 이용하려는 생각임에도 그라베는 조선인을 러시아 국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찬성한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동화를 잘한다. 조선인은 황색인종 중 성질이 가장 유약하고 강자라고 보이면 곧 항복하는 사대주의자 무저항주의자이다. 그들은 또 그들이 접촉하는 일체의 자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일 정부가 조금이라도 힘을 기울인다면 그들은 쉽게 러시아화하여 충성하게 될 것이다...조선인의 동화경향은 러시아인과 떨어지지 않은 지방에 특히 현저하다. 이에 반하여 조선인과 접촉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조선으로부터 신입국자의 유입이 조국과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시켜서 동시에 조국의 풍습보존상 그들에 영향을 주어 동화경향은 거의 없다...러시아 국민이 되고자하는 욕구는 비상히 강하여, 블라디보스톡, 니콜리스크, 수창 에카테린스키 농촌의 조선인은 러시아어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러시아인의 가정에 들여보낸다.⁴¹⁾

이같이 아무르답사대는 조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취함으로써 조선인들이 추방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은 물론 극동의 경제발전에 조선인의 개척정신과 근면 그리고 저임금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인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답사대의 총책임이었던 곤다티가 1912년부터는 프리아무르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다.

IV. 메르쿠로프와 황화론

아무르답사대가 러시아인들의 황화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태도가 항상 일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아무르답사대의 경우 조선인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을 포용하

40) *Ibid.*, p. 171.

41) *Ibid.*, pp. 172~173.

고 조선인들을 러시아 국적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한 포용정책이 실시되는 중에도 이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존재하였던 것 사실이고, 이들은 조선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역시 황화라는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그룹의 대표주자가 바로 메르쿠로프(Spiridon Dionisovich Merkulov)였다.⁴²⁾

1912년 3월 10일 메르쿠로프는 니콜라이 황제에게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황색인종들에 의하여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러일전쟁에서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군사적 패배도 결국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이 원인이 된 것인데, 이 극동지방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러일 전쟁이 가져다 준 수 만명의 희생자 및 파괴된 가족들이 결국 우리의 변경으로서의 프리아무르지방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프리아무르지방이 없었다면 만주에서의 일도 없었을 것이고, 러일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25억 루블의 손실과 수 만명의 귀중한 러시아인의 생명의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⁴³⁾

그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러일전쟁 이후 느낀 것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러일전쟁으로 일본에 만주지방을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프리아무르지방이 새롭게 중국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경제적으로 점점 성장하여 프리아무르의 전국경지방을 식민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프리아무르지방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자유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게다가 중국인들은 힘이 없어서 러시아 극동지방이 러시아 영토가 되었지만 땅 자체는 중국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프리아무르지방을 영토로서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

42) Spiridon Dionisovich Merkulov은 1921. 5. 21~1922. 6. 9에 블라디보스톡에 성립한 백군계의 임시연해주정부의 수반이었다. 일본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43) *Zheltaia Opasnost'*. Vladivostok: Izd. "Voron," 1996, p. 16.

44) *Ibid.*, p. 18.

서는 중앙과의 강력한 문화적·경제적·국민적 유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연금생활자들이 아닌 “우리의 적들과 맞서는 운명을 바라는,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강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⁵⁾

메르쿠로프는 1899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의 10년간의 통계를 개관하면서 프리아무르지방이 중국의 만주지방에 비하여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안보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기간에 프리아무르 지방에서의 러시아 인구는 13만에서 62 만으로 늘어났지만 그중에서 중국인은 2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만주지방의 중국 인구는 170만에서 400만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⁴⁶⁾ 나아가서 중국인들의 약 40%는 불법체류자로서 이들의 수를 감안한다면 아무르주와 연해주에서의 중국인의 수는 32만 5천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국인의 95%는 16~45세의 남성으로 구성된 반면 러시아인 인구 전체는 32만 정도이고 그중 16~45세의 남성인구는 20만 정도라고 하였다.⁴⁷⁾

그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인들의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러시아 식민의 위협은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프리아무르지방에서의 밀생산은 자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잉여생산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것은 20세기 첫 10년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프리아무르 지방들에서의 밀 등, 곡류의 생산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 대신 만주에서 곡식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였다. 곡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 있어서는 그 경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야채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블라고베센스크의 경우 1897년에 야채는 풍부하였고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광산에도 공급이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밭에 잡초만 무성하다. 아무르대안에서의 중국의 야채가 들어와서 완전히 시장을 잠식하였기 때문이다. 연해주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모든 채마밭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에 의하여 경작된다. 러시아인 채마밭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910년에만 바다를 통하여 중국·일본으로부터 50만 푸드의 야채가

45) *Ibid.*, pp. 19~20.

46) *Ibid.*, p. 22.

47) *Ibid.*, pp. 26~27.

수입되었다. 스푸츠크촌에서는 모든 채마밭과 야채상이 중국인들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897년 연해주에서 생산된 것과 수입된 야채만 2 백만 푸드에 13 만 2 천 루블이 된다. 그러면 러시아인의 농업이 왜 중국인과 한국인과 경쟁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들의 임금이 러시아인들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목축도 중국인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1897년 만주에서 3만 2천 루블의 고기가 수입되었는데 1910년에는 150만 루블이 되었다.⁴⁸⁾

산업에 있어서의 위협 역시 덜 심각하지 않은데, 1891년 아무르주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중국인 노동자가 8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11년에 아무르주에서 러시아 노동자는 2,012명이나 중국인은 10,194명이고 연해주에서는 러시아인은 6,478명이나 중국인은 14,501명이다. 러시아인들에 의하여 산업이 발달되고 있으나 러시아 노동자가 수십 명 늘어날 때, 수백 명씩 늘어나는 것은 중국인 노동자들이다.⁴⁹⁾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메르쿠로프가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정부의 확실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프리아무르지방을 러시아의 영토의 유기적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식민지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였다.⁵⁰⁾ 만일 단순한 식민지로 간주한다면 어느 노동력이 들어오더라도 막지 말고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대한의 산물, 최대의 이윤을 산출하게 이를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의 유입을 최대로 막아서 러시아인에 의한 프리아무르지방의 러시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노동자의 유입을 방치하는 허술한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유입노동자를 막으면서 기존의 노동자를 퇴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⁵¹⁾ 왜냐하면 변경의 “중국화”는 단지 과장이 아니며 이미 중국화되었기 때문이다.⁵²⁾

그는 이러한 러시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러시아정책에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중에 하나는 카자크의 문제였다. 카자크가 변경을 개척하는 데 공헌을 하

48) *Ibid.*, pp. 32~34.

49) *Ibid.*, pp. 36~37.

50) *Ibid.*, p. 49.

51) *Ibid.*, p. 44.

52) *Ibid.*, p. 45.

였지만 중국과의 문제는 “군사적인 관계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에서 위험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 비옥한 변경지역을 일반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나아가서 그는 러시아인들의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저임금이 아닌 고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높은 곡물가격과 노동력의 상대적 고평가가 바로 이 지역을 러시아화 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그를 위하여서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과 중국 상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다른 시책이 또한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관청들 사이의 일치된 정책시행이 중요하며 일관된 정책으로 중국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 a) 만주에서 수입되는 밀과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과세
- b) 중국과 1911년 8월 체결된 프리아무르 중러 국경 지역 50 베르스타 이내 지역에서의 자유교역을 즉각 폐지 할 것.
- c) 중국인 수의 증가 방지와 기존 중국인의 추방 이를 위하여 ① 휴일 노동 금지. ② 위생 규칙을 제정하여 중국인들이 러시아인들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차단. ③ 중국인들이 옷 벗고 일하는 것 금지 ④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아편흡입점, 도박장, 모든 중국식당을 폐쇄하는 것. ⑤ 중국아파트 소유자에게 영업세 부과. ⑥ 재정으로 지출되는 일에 중국인 고용 금지. ⑦ 중국인들에게 일인당 20루블의 여권세를 수납하고 엄격하게 통제.⁵⁵⁾

그와 함께 러시아 농업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혜택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한 프리아무르지방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동청철도가 오히려 중국인들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개탄하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동청철도는 러시아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프리아무르를 식민지로 간주하여 외국노동력을 수탈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⁵⁶⁾

53) *Ibid.*, p. 51.

54) *Ibid.*, p. 53.

55) *Ibid.*, pp. 60-62.

56) *Ibid.*, p. 71.

그는 결국 프리아무르지방은 상실의 위험이 있으며 그 때문에 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무르철도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1908년의 당시 수상 스톨리핀의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에게는 일본 및 중국과의 평화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평화적 관점에서든 중요한 것은 아니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방금 말한 바와 같은 그같은 인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지방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사시에 이 군사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음식을 제공할 자발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⁷⁾

운테르베르케르의 황화론이 조선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하여 메르쿠로프의 황화론은 중국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한국이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었고 일본은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침략의 방향을 이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은 아직도 취약한 식민기반을 가진 러시아 극동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만주에서의 중국인 이민의 증가와 만주의 중국인에 의한 러시아 극동경제의 장악은 결국은 유사시에 일본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인에 의한 러시아 극동이 강조되는 것이 메르쿠로프 황화론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황화의 담론에서 공통적인 것은 황인종의 위협이며 러시아 극동을 러시아 인들에 의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대표적인 황화론자인 운테르베르케르와 그라베 그리고 메르쿠로프의 의견을 중심으로 황화론을 살펴보았다.

황화론의 대두는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와 극동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러시아의 식민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위협을 표현한 것이었다.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세력으로, 중국은 그 인구와 경제활동

57) *Ibid.*, p. 73.

으로 인하여 러시아 극동을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당시에 조선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에 조선인 자체가 크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났다. 조선인이 특히 위협스러운 존재로 인식된 이유는 조선인들이 정주를 목적으로 하여 이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영향을 받는다면 조선인은 일본인들이 러시아 극동을 지배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운테르베르 게르는 특히 조선인들의 극동이주를 배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운데 아무르탐합대의 그라베는 조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들이 러시아를 위하여 위험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간파하고 조선인들을 배척하는 정책 대신 포용하는 정책을 건의하여 이점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전개된 이같은 황화의 담론을 통하여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극동을 지배하는 세력이면서도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가공의 위협으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어 버렸다. 위협의 근원은 사실은 조선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자신의 의지를 독자적으로 발휘할 힘이 없었기에 도구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다.

황화의 담론은 그 출발에서는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명-야만의 대비가 그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야만은 무의식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공포를 물리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없는 황인종을 박해해야 될 정당성을 확보했다. 러시아 극동의 경우, 이 박해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인이었다. 황화 담론의 시작은 제정시대 조선인 이민에 대한 견제로 시작되었으나 혁명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궁극적으로는 1937년의 박해와 강제이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승제,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 分析」. 『白山學報』 제11집, 1971, 149~168 쪽
- 고승제, 『韓國流移民史研究』. 서울: 장문각, 1973.
-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서울: 통일원, 1996.
-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관계와 변화』. 서울: 국학자료원, 2001.
- 김승화, 정태수(역), 『소련한족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김준엽, 김창순, 『韓國共產主義運動史(1)』. 서울: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서울 일조각 1990.
- 윤병석,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과 신한촌」. 『한국민족운동사연구(3)』,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연구』. 서울: 탐구당, 1996.
-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黃禍論)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4권 1호, 2000, 73~108 쪽
- 현규환, 『韓國流移民史(상)』. 서울: 어문각, 1967.
- Anosov, S. D., *Koreitsy v Ussuriiskom Krae*. Khavarovsk-Vladivostok: Knizhnoe delo, 1928.
- Grave, V. V., *Kitaitsy, Koreitsy i Iapontsy v Priamure*. S. Peterburg, 1912.
- Koreitsy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Vtoraia Polovina XIX-Nachalo XX vv.: Dokumenty i Matelially*. Vladivostok: Izd. DU, 2004.
- Kuzin, Anatolii, *Dal'nevostochnye Koeitsy:Zhizn' i Tragedia Sud'by*. Iuzhnosakhalinsk: LIK, 1993.
- Merkulov, S. D., "Russkoe delo na Dal'nem Vostoke, 10 marta 19123 g." in *Zheltaia Opasnost'*. Vladivostok: Izd. "Voron," 1996.
- Pak, B. D., *Koreitsy v Rossiiskoi Imperii*. Moskva, 1993.
- Petrov, A. I.,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Vladivostok: DVO RAN, 2000.
- Poulet, R., Le peril jaune, *La Revue des ressources*, le lundi 7 novembre 2005.

국 문 요 약

러시아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청과 조선의 인구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개발을 한편에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극동식민지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러시아의 견지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 러시아가 극동을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 일하고 있던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에 대해 “黃禍”라는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었다.

황화의 담론은 특히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에 강하게 나타났다. 황화론의 대두는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와 극동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러시아의 식민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위협을 표현한 것이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전개된 이같은 황화의 담론을 통하여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극동을 지배하는 세력이면서도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가공의 위협으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어 버렸다. 위협의 근원은 사실은 조선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자신의 의지를 독자적으로 발휘할 힘이 없었기에 도구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황화의 담론은 그 출발에서는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명-야만의 대비가 그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야만은 무의식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공포를 물리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없는 황인종을 박해해야 될 정당성을 확보했다. 러시아 극동의 경우, 이 박해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인이었다.

● 투고일 : 2006. 2. 22.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keyword) : 러시아 극동(Russian Far East), 황화론(yellow peril), 러시아의 조선인(Koreans in Russia), 아무르답사대 (Amurskaia Ekspeditsia)